

“더 낮은 자세로 사회복지사 자부심 되찾겠다”

정석왕신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최근 선거서 당선…임기 내년 3월부터
목포 출신…현장·행정 섭렵한 전문가
상근 회장·예산 현실화·연대 등 공약

“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면 길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 낮은 자세로 140만 사회복지사 곁에서 일하겠습니다.”

목포 출신 정석왕(56·사진 오른쪽) 사회복지사가 최근 치러진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정 신임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1일부터 3년이다.

목포 태생인 정 신임회장은 광주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대 행정대학원 석사, 경영대학원 석사를 수료했다.

제14·15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지난 3월 치러진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서 정석왕 사회복지사(56·사진 오른쪽)가 당선증을 거머쥐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공>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제주장애인요양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복지 현장과 행정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정 신임회장의 승리 요인으로

는 ‘진정성 있는 배수진’이 꼽힌다.

그는 23년간 운영해 온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 직을 과감히 사퇴하고 협회장으로서 여의도와 세종에 상주하며 정책 협상에만 전념하겠다는

‘상근 회장’을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들의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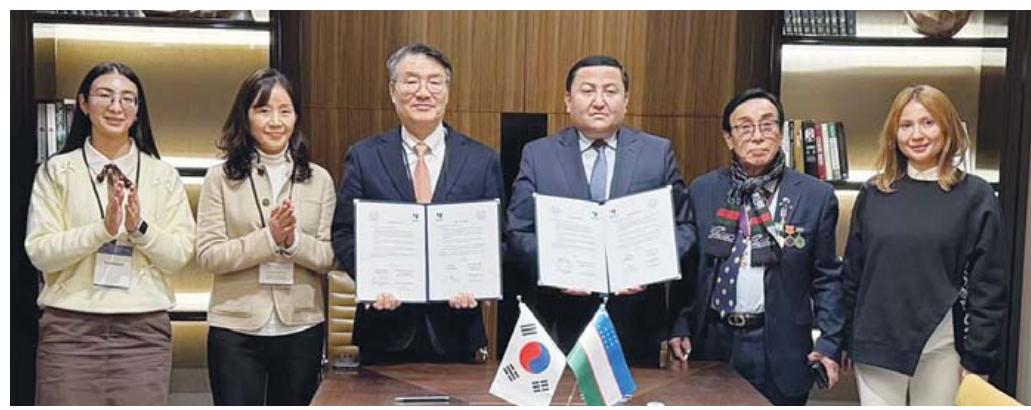
심을 훈들었다.

또 선거 기간 ‘현장의 정석, 협회의 정석으로 사회복지사의 자부심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 정부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한 제도·예산 현실화 ▲분야를 넘나드는 복지 연대 실천 ▲존중받는 현장 조성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핵심 공약으로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통한 권리 보장 ▲연대를 통한 강력한 복지 동력 구축 ▲보조금 지급 연령 상향 등 보수교육 체계 개편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정 신임회장은 “지나온 여정의 어느 순간을 떠올려 봄에 여려분의 얼굴과 마음이 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태준 분들의 온기가 큰 힘이 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이어 “당선이라는 기쁨보다 여러분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에 대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며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고 진심을 다해 사회복지사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호남대-우즈벡 국립대학 ‘교육 협력’ 강화

호남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주요 국립대학과 교육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8일 호남대에 따르면 박상철 총장과 손완이 국제교류처장은 최근 서울 JW 메리어트 등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제2회 한-우즈벡 대학총장 포럼’에 참석해 교육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교육부와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과학혁신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25개 대학 총장 및 부총장단이 참여해 미래 고등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호남대학교는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과 ▲우즈베키스탄 국립 세계언어대학교 ▲나

망간 국립대학교와 ▲나보이 국립대학교 등 4개 국립대학교와 전략적 교류 협력 양해각서(MoU) 및 업무협약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학생·교수 교류, 공동 연구 수행, 학술 행사 공동 개최, 복수학위 추진 등 실질적 국제 교육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박상철 총장은 “AI 시대 글로벌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포럼 주제는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국제협력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이번 협정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대학과의 교류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광양경제청 ‘증기-벤처캐피탈 투자유치마트’ 성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광주 라마 다플라자 호텔에서 ‘2025년 전남 중소기업-벤처캐피탈 투자유치마트’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양경제청과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가 공동 주최했으며, 지역 중소기업과 수도권 벤처캐피탈(VC) 관계자들이 만나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기계·장비, 화학, 전기·전자 분야 등 1

4개 기업이 자체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소개하

는 투자설명회(IR)를 가졌으며 포스코기술투자, IBK벤처투자, 하나벤처스,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등 8개 유력 VC가 참석해 기업들과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일부 기업과는 후속 투자를 협의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았다.

구종근 청장은 “전남 기업들의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국내 주요 벤처캐피털에 직접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참푸른글로벌, 담양군에 돼지고기 400kg 기탁

담양군복지재단은 “최근 담양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농업회사법인 (유)참푸른글로벌의 돼지고기 400kg(400만 원 상당) 후원품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송석찬 참푸른글로벌 대표이사가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참푸른글로벌은 양돈 사육부터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는 축산 토클 솔루션을 구축한 종합 축산 기업이다. 특히 HACCP·ISO 9001 인증을 획득해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2017년 담양 도축장을 인수한 이후 매년 복지재단을 통해 꾸준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석찬 대표이사는 “연말을 맞아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원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장성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최근 저소득 고령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직원들이 심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각 읍·면을 누비는 집배 주무관들과 우체국의 추천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8가구를 선정했다.

봉사단은 연탄 900장(3가구)과 김장 김치 150kg, 쌀 300kg(15가구) 등 총 27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봉사단원 이원철 주무관은 “평소 우편물을 배달하며 흔히 계신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는데, 이번 기회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



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기 행복나눔봉사단장은 “앞으로도 집배 원들의 흔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광주 사랑의 열매, 서구청서 ‘희망나눔캠페인’ 홍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사랑의 열매)는 8일 광주 서구청에서 ‘희망2025나눔캠페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서구 ‘2025년 기부주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구청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청 앞 광장에서는 푸드트럭을 통해 어묵 200인분을 나눴으며, 1층 홍보 부스에서는 사랑의 열매 베지·리플릿·핫팩 등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알렸다.

광주 사랑의 열매와 서구가 함께하는 2025년



기부주간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이연상 기자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5·18 시민헌혈’ 강의료 기부

김동수(사진) 대
한적십자사 광주
전남혈액원장은 8
일 올 한 해 ‘5·18
시민헌혈에 나타
난 연대와 나눔’
특강을 진행하며
받은 강의료 100만
원을 적십자 희망
나눔 성금으로 기

부했다.

김 원장은 지난 5월 ‘예 광주적십자병원’ 입사 개방 기간에 맞춰 시민헌혈 캠페인을 펼쳤으며, 8월부터는 ‘5·18 시민헌혈에 나타난 연대와 나눔’을 주제로 혈액의집 종장로센터, 오월어머니집, 광주대, 동강대 등에서 총 8회 강연했다.

김동수 원장은 “5·18 시민헌혈 특강과 이번 강의료 기부가 우리 지역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이어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전남 관광의 날 기념식 성료

전남도는 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관광업 종사자를 격려하고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 결의를 다지는 제52회 전남도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흥일성 전남관광협회장, 임춘임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 관광업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와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다짐하고 내년 대형 이벤트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의지를 높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영상 격려사를 통해 “올해 전남 관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잡 잘 내렸다’는 점”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역마다 개성 넘치는 축제가 전국에 명성을 높였고 반값여행 같은 기발한 시도가 대한민국 관광 시장을 놀라게 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청년 소통 워크숍’

전남도는 지역 청년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청년 소통 워크숍을 최근 이틀간 여수에서 열어 청년정책 역량 강화와 교류 거버넌스를 다졌다.

워크숍에서는 전남도 청년협의체인 ‘청년의 목소리’를 비롯해 시·군과 대구, 광주의 청년정책 협의체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 안팎의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교류했다. /김재정 기자

결론

▲문명열(전 금파공고 교사)·유민숙씨 아들 준희(해남 우수영호 교사)군, 윤영기(광주일보 정치·경제담당 에디터)·김선의씨 딸 혜원(해남 황산초 교사)양=13일 (토) 오후 12시 광주 글로리 아워홀(옛 데일리웨딩컨벤션) 1층 라비아홀. ▲김성택·김광순씨 아들 옥진군, 이해용·박옥실씨 딸 송희양=13일 (토) 오후 4시 메리포엠웨딩홀(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빌딩(0307-1401-4170).

▲이장원·강영희씨 아들 원창군, 신승식·오영욱씨 딸 현선양=13일 (토) 낮 12시 20분 JnJ아트 컨벤션 2층 제이드팰리스홀(경기 평택시 비전5로 20-46) 031-663-5300. ▲CMYK